

## 2018년 5월 19일 "(가정의 달) 이삭 가족 이야기"(27:27-30; 38-40)

### <도입>

**창 25:11**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버지 복을 이은 이삭 가정에서는 누가 장자인가에 관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 [1] 이삭

그는 아버지께 순종적이었습니다. 모리아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릴 것을 알았지만(10 대 후반~20 대 초에)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선한 목적과 믿음의 행동을 신뢰한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기 신부를 구해 줄 때 기쁘게 받습니다. 아버지의 배려도 컸습니다. 혹시라도 이삭의 배다른 형제들이 훗날 이삭과 갈등을 일으킬까 봐, 모든 자녀에게 한 몫 씩 주어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빼앗으려고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내어 주기도 합니다.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20년 만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25:26) 가정에 갈등 전조였습니다. 태 안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23** "...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하였고, 동생은 손으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발뒤꿈치를 잡다, 대신 들어 앉은 자, 찬탈자를 뜻함)이라고 했습니다.

### [2] 두 아들의 갈등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친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상가상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편애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시장했는데 야곱이 팔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에서가 그 붉은 죽을 달라고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장자권)를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음식을 구했습니다.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세하라고 했고 에서는 맹세하고 얻어 먹었습니다. → **25:34**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장자권을 경히 여긴 것을 꼬집은 말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과 작전을 짜서 에서의 털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요리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속아넘어가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27-29 절.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축복을 원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에 에서는 분노했습니다(36 절). 그리고 이삭은 에서의 강청에 축복합니다. 39-40 절(읽음)

주석가들은 40 절을 에서가 쉴 새없이 힘을 기르면 동생의 컨트롤로부터 벗어나며, 결국 에서 족속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에서도 에돔족속을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을 하며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탈탈 털린 삶입니다.

**히 11: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이 사는 하란(밧단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거기서 20년을 보냅니다. 이 두 아들을 보면 어떤 믿음의 가정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택해서 약속의 유산을 물리시려 했습니다(25:23). 그러면, 야곱이 이런 식으로 장자권을 따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것이 주님께 합당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많이 비판합니다. 속이고, 찬탈하는 자라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에서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3] 에서는 미워하시고**

**말 1:2-3/롬 9:13**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처음부터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주님께 합당한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장자 됨에 관한 평가의 말씀입니다.

**히 12:16-17**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유업을 잇는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은 유업을 스스로 차단한 일입니다. '망령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늘의 유업세계를 누리고 나누어야 할 장자권의 특권을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것보다 팔죽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예 유업에서 회복 불능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모든 만아들과 만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만아들을 레위 지파로 돌리셨습니다(민 3:40). 더 중요한 장자의 개념의 확대는 민족 전체를 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 4:2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아들이라 했습니다. 장자의 정신과 행실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유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장자는 장자다워야 합니다. 장자는 집안을 돌아보며 어른들을 섬기고, 동기들을 보살핍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집과 유산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맺음>**

혈통상 첫째라고 장자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가 장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령한 유업을 향한 헌신을 통해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나누어 보십시오)
2. 한번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깊이 사모하며 애써 구하고 얻을 것은 부요한 주님의 유업(유산,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이것을 향한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